

대구경북연구원도 내년부터 경영평가 받아 박부희 대구시의원 발의

대구경북연구원이 내년부터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올해 대구시로부터 22억원, 경북도로부터 14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1991년 설립된 이후 직원수가 적합한지, 연구원들의 연구실적이 어떤지 등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않았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술)는 7일 박부희 의원(달서구·사진)이 발의한 대구경북



연구원 육성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회부했다.

개정안에 대한 시의원들의 반대가 없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시장이 객관적인 경영평가기관에 의뢰해 연구원의 경영평가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로 실시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대구경북연구원 사무에 대한 검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구시 지원금이 22억원이나 되는 대구경북연구원 운영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